위메이드 '위믹스' 확장… 中 게임 10개 준비

올해 블록체인 플랫폼 확장 총력
100개 게임중 중국회사게임 10개
게임쇼 통해 글로벌 파트너 모색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6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메이드 유튜브 캡처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중국 게임 10개를 위믹스에 올리고 국내외 게임쇼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모색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믹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올해 100개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자신했다. 이를 토대로 위믹스에 기반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그간 쌓아온 중국 네트워크가 있는 만큼 이미 중국 회사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올해 위믹스에 올리려는 100개 게임 중 10개 정도는 중국 회사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르4' 사례가 있어서 P2E(돈 버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인데 해외에서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편"이라며 "게임에 블록체인을 더해 재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B2B(기업간 거래) 분야로 나갈 것이다. 서구권의 경우 올해 게임쇼에 참가해 개발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내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 참가를 확정했다.

위메이드는 올해 1분기 중 '라이즈 오브 스타즈', '에브리타운', '다크에덴M', '건쉽배틀: 크립토 컨플릭트', '열혈강호 글로벌' 등 5종의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5종의 게임이 출시되면 '미르4' 글로벌 매출에 더해 성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위믹스 플랫폼 매출은 지난해 3분기 5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36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번 분기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5종의 게임 출시를 기점으로 외부 개발사의 웰메이드 게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플랫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자회사로 편입한 선데이토즈와 함께 첫 P2E 소셜 카지노 게임도 선보인다. 장 대표는 "소셜 카지노는 국내에서는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해외에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그나마 규제가 덜한 NFT는 적용이 될 것이고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도는 선데이토즈가 가장 앞서 있어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지만 외부 소셜 카지노 개발사들에도 위믹스의 문호는 열려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위믹스 가치를 떨어뜨려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상충하는 관계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위믹스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위믹스 플랫폼의 주요 수입원이고 위믹스를 떨어뜨리면 위메이드 매출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믹스의 최고가가 24달러 수준인 만큼 발행 물량의 2%를 1~2주 안에 소각하기 위해 현재 기술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는 코인 생태계 성장 과정에서 코인 보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융합 DB로 데이터관리 편의 돕겠다"

탐송 한국오라클 대표의 자신감
DB 아키텍처 전략 등 집중 소개



"데이터나 업무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DB(데이터베이스)를 쓸 경우 복잡성과 기술적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단일 DB 엔진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업무를 지원하는 융합 DB 전략을 통해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과 단순화, 작업 생산성 향상을 돕겠다."

한국오라클이 16일 연례 기술행사 '오라클 이노베이션 데이'를 열고 데이터 관리 자동화 기술과 DB 아키텍처 전략을 소개했다. AI(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영 기술과 클라우드, 융합형 DB 전략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민첩한 혁신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탐송(사진) 한국오라클 대표는 "융합형 DB는 목적별 개별 DB 운영방식과 달리 하나의 DB에서 모든 데이터와 비즈니스를 해결해 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높여준다"면서 "이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업무 담당자가 비즈니스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여규채 한국오라클 상무는 "오라클의 데이터 관리 목표는 3가지"라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장성 있으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융합형 SQL DB를 구축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 트랜잭션, 분석, 혼합 워크로드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상에서 DB 관리자와 개발자,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해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화를 DB 레벨까지 적용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함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 운영·관리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또 온프레미스(자체 구축) 시스템과 타사 DB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기반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툴과 이전 서비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코딩을 최소화하는 로코드 개발을 지원하는 'APEX 애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도 오라클이 내세우는 강점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코딩 대신 브라우저 상에서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반응형 웹과 모바일앱을 개발할 수 있다.

여 상무는 "코딩은 이제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규칙이 아니라 예외가 돼야 한다. APEX 서비스를 이용하면 코딩보다 최소 10배 빠른 속도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수백만개의 APEX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고 매일 3000개 이상이 새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우 한국오라클 상무는 "데이터는 전기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 맞춰 완벽한 DB를 제공하는 게 오라클의 목표"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친환경 소금·항바이러스 소재 개발

대학·기업 오픈랩, 지역 성장엔진 켜다

5 전남대학교



전남대와 에코솔트 관계자들이 미세플라스틱 제거기술과 천일염 마그네슘 함량 조절기술에 대한 이전 협약식을 맺고 있다. 전남대 제공

소금 제조·원재료 재활용 혁신
구강세척 의약품 등 연구 성과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기술사업화 모델을 만들겠다."

전남대가 지역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대학·기업·지역 혁신기관이 한 팀으로 뛰는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사업화'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학에서 싹을 틔운 원천기술을 미래 먹거리에 목말라 하는 기업들에 전수해 신시장을 열어가는 것.

김명준 전남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 팀으로부터 마그네슘 함량을 조절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한 친환경 소금 제조기술을 이전받은 에코솔트가 대표 사례다.

천일염에는 바닷물에 섞여 있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바닷물에는 일정량의 마그네슘이 녹아 있어 쓴맛을 낸다. 이 때문에 기존의 숙성 천일염은 생산 과정에서 마그네슘을 제거하는 간수 작업을 거쳐야 해 관련 시설과 비용 부담이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전남대와 인연을 맺은 에코솔트는 마그네슘 함량조절 세척염수와 관련 제조방법, 세척천일염 제조방법 등에 대해 작년 10월 전남대와 5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물질의 비중과 부유 특성 차이를 이용해 미세플라스틱을 100% 가까이 제거하고, 탄산나트륨 침전반응을 이용해 마그네슘을 제거하는 세척수 제조기술이 핵심이다.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높인 기술을 확보한 이 회사는 파일럿 플랜트를 통한 천일염 시험생산과 미세플라스틱 제거율에 대한 공인시험도 마무리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양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김명준 교수는 올해 사업화 범위를 고순도 수산화리튬 제조와 구리 폐슬래그로부터 고순도 구리를 회수하는 기술로 넓히고, 친환경 소재기업 두 곳과 협업체계를 갖췄다.

김명준 교수는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제조 시 부산물로 나오는 유해폐기물인 황산나트륨 발생을 줄이고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활용하는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면서 "수산화리튬 생산비용도 낮춰 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돕겠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 소재 기술기업 바이오쓰리에스는 전남대 김두운 교수(농식품생명공학부) 오픈랩과 팀을 이뤄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용 항체 대체용 단백질 상품화에 도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선급기술료 2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오픈랩 연구자들은 작두콩에서 유래한 물질을 활용한 바이러스 포획 단백질을 개발하고 비장세포 내 사이토카인 생성 정도를 비교해 면역효과를 검증했다. 이어 단백질 대량 생산을 위한 발효조 시스템과 생물공정법을 확립하고, 1.5톤 용량의 시설을 시험운영하는 한편 생산한 단백질을 활용해 구강세척 및 바이러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약외품 시제품 제작을 마쳤다.전남대의 도전에 지원군 역할을 하는 오픈랩 사업은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주도해 대학 내 연구성과를 기업이 사업화하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대학 연구실에서 어느 정도 개발돼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주로 선정해 빠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남대는 총 6개 오픈랩을 구성해 지난해 6건, 11억5000만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31건의 기술지도 및 상품화 지원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픈랩 소속 연구인력 3명은 기업에 취업했다.

△박애란 교수가 주도하는 작물보호소재연구실은 세균병에 활성을 갖는 신규 활성균주를 이용한 미생물백신 △김형근·김장호 교수가 이끄는 한국생체소재연구센터·헬스케어솔루션 연구실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바이오 그래핀 기반 임플란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한종훈 교수가 주도하는 나노카본융합소재연구실은 그래핀-메탈 나노와이어 하이브리드 분산액을 적용한 유연 발열필름 △최종일 교수가 이끄는 생물분자공학연구실은 비천연 아미노산 결합을 위한 신규 아미노아실 tRNA(전달RNA) 합성효소 개발과, 해조류 유래 기능성 다당류 생산기술 사업화가 목표다. 전남대는 올해 대상 기술과 협력 기업 범위를 넓혀 성과를 키울 계획이다.

민정준 전남대 산학협력단장은 "오픈랩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은 과기정통부의 오픈랩 사업과 연계해 유망기술 발굴 단계부터 상용화 개발까지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지원의 성과"라면서 "신속한 사업화 성공을 위해 최적화 공정 개발 및 파일럿 플랜트 제작 등 추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화웨이, 중동·아프리카에 태양광데이터센터 설립

화웨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저탄소 태양광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웨이와 두바이 수도전력청(DEWA)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태양광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내달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1차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는6개국 화웨이 직원들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중동에 약 2000㎡ 규모의 컴퓨터실을 5일만에 완성했다.

화웨이가 설립할 데이터센터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내 최대 규모로 10만㎡가 넘는 공원 부지에 건립해 100% 친환경 전력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두바이 남동쪽에 있는 DEWA의 300MW 규모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에 위치해 있으며, DEWA의 자회사인 모로허브가 건설을 주관한다. 최종 시설은 세계적 데이터센터 평가 기관으로부터 티어3(Tier III certified) 표준 인증도 받게 될 예정이다.

스티븐 이 화웨이 아랍에미레이트(UAE) CEO는 "오늘날 데이터는 경제 확장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이번 사업은 향후 데이터센터 시설이 더 많이 구축될수록 디지털 기술과 전력전자 기술을 결합해 신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친환경·저탄소 ICT 인프라를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

영림원소프트랩, 한국삼공에 K-시스템 에이스 공급

ERP(전사적자원관리)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한국삼공에 ERP 'K-시스템 에이스'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K-시스템 에이스는 산업별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를 담은 맞춤형 ERP다. 영림원소프트랩은 국내 10위권 농업용 약제전문기업 동방아그로와 농협케미컬 ERP 공급에 이어 한국삼공에도 ERP를 공급함에 따라 관련 업종에 특화된 ERP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삼공 ERP 도입 프로젝트는 영림원소프트랩의 골드 파트너인 시스웨어가 맡는다. 시스웨어는 1998년부터 24년간 K-시스템 ERP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68년에 설립된 한국삼공은 작물보호제를 생산해 국내 식량증산에 기여해 왔다. 한국삼공 관계자는 "성공적인 ERP 도입을 위해 1년 이상 여러 성공사례를 비교 했다"며 "향후 14개월에 걸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삼공은 이후 베트남 공장에도 ERP를 도입할 계획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동종 기업들의 'K-시스템 에이스' ERP 문의도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양대진 시스웨어 대표는 "그동안 농업용 약제전문기업에 ERP를 구축하면서 관련 산업의 프로세스 혁신과 컨설팅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용 약제부문에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카오, 브런치작가 등록수만 5만명

이중 책 출간한 작가 2900명
마케팅 지원 확대로 질적 성장

카카오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 등록된 작가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5년 6월 카카오가 선보인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이다. 별도의 작가 승인 제도를 통과한 엄선된 브런치 작가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한다.

브런치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출간까지 이어지면서 브런치 작가 5만 명 중 책을 출간한 작가는 2900여명, 이들이 출간한 도서는 4600여권에 달한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전자책으로 출간돼 밀리의 서재 종합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종이책 출간까지 이어졌다. '젊은 ADHD의 슬픔'은 지난해 6월 출간 후 6개월 만에 7쇄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90년생이 온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공부머리 독서법' 등이 브런치북에서 발굴돼 세상에 알려졌다.

브런치가 새로운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속적인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가 있다. 카카오는 2015년부터 매해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를 열어 출간을 꿈꾸는 브런치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9회에 걸쳐 매년 출판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브런치북 응모작 가운데 10개의 대상작을 발굴하고 출간 계약을 했다. 카카오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출간 이후 특별 전시 등의 마케팅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젝트의 누적 응모작은 3만2704개, 수상작은 279개다.

지난해부터는 여러 파트너와 손잡고 다양한 콘텐츠 영역으로 브런치북의 2차 저작물 포맷을 확장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와 함께 브런치북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를, '윌라'와 브런치북 오디오북 출판 프로젝트 개최했다. 8회, 9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는 특별상 부문에 탈잉과 와디즈가 참여했다. 탈잉에서는 3개 작품을 VOD(주문형 비디오)로 제작했으며 와디즈에서는 오는 3월 수상작 기반 콘텐츠를 펀딩 방식으로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MSS의 모든기능을 추가설치없이 완벽하게
클라우드 통합메일보안솔루션
MSS MCS CLOUD SERVICE
AI기술 기반의 최신 기술로
안전한 기업메일 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One